



## 광주여대, 교수단 장학증서 수여식

광주여자대학교는 29일 대학 본부 3UP STATION에서 ‘교수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여대 교수단 장학금은 개교 33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전 교원이 매월 장학기금을 적립해 마련한 재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총 374명의 학생에게 1억 8,600만원이 전달됐으며, 이번에는 학교 추천을 받은 25명의 학생에게 총 1,1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정성일 부총장은 “대학 교수진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여대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훈 교수단 회장은 “교수진의 인정과 응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학생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교수들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최환준 기자



## 광주교육청, 금연·마약 예방 캠페인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분청 북카페에서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직원 대상에 흡연과 마약이 개인 건강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교육 리플릿과 홍보물을 나누고, 금연 다짐과 금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금연나무를 연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흡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하도록 독려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흡연 및 마약 예방과 금연 실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유은학원 총동문회 ‘유은인의 날’ 행사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광주동성고·광주동성중·광주동성여중) 총동문회가 지난 28일 ‘유은인의 날’ 행사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은학원총동문회 박규환 회장, 김영석 상임수석부회장, 김철남 수석부회장(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 오경미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동문 500여 명과 광주동성중·고, 광주여상고 교직원·학생 700여 명 등 1천200여 명이 참여했다.

박규환 회장이 시구, 김철남 수석부회장이 시타 했으며 오경미 상임부회장은 CMB 명예해설, 이순철 동문(전 LG 트윈스 감독)은 SBS 해설을 맡았다.

경기에는 광주동성중·고 출신인 KIA 투수 양현종, 포수 한준수, 외야수 김석환이 선발 출전했으며 김도영은 전날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결장했다. 키움에서는 내야수 최주환이 선발 출장했다.

유은 동문들은 흰색 KIA 홈경기 유니폼을 입고 ‘유은학원 동문의 날’이라고 인쇄된 수건을 펄치며 응원전을 벌였다.

응원 덕분에 KIA가 키움을 13-7로 역전승을 거뒀다.

최환준 기자

# 광주·독일 학생들 “과학자 꿈 함께 키웠어요”

## 글로벌 사이언스 프로그램 참여 학술 교류·광주 역사 공간 탐방 광주과학고 교육프로그램 호평

광주과학고등학교와 독일 영재학교인 빌헬름 오스트발트 김나지움 학생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29일 광주과학고에 따르면 빌헬름 오스트발트 김나지움(이하 WOG) 학생들이 ‘2025 글로벌 사이언스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의 국제협력 능력과 과학 소양을 키우기 위해 광주과학고와 WOG가 체결한 ‘글로벌 사이언스 교류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두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상호 교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 공유 △공동 학술 및 문화 행사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과학고 학생들은 지난 1월 독일 WOG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하며 독일 문화를 체험하고, 학술 연구발표 및 토론회에 참여했다.

지난 25일에는 WOG 학생 15명과 인솔 교사 2명이 광주를 찾았다.

독일 학생들은 방문 기간 광주과학고 학생들과 △광주과학고등학교의 물리·화학·생명과학 실험 수업 참여 △전체 관측 활동 △연구활동 세미나 △국립광주과학관 직업탐구활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한국 전통문화 탐방 등 학술 교류와 광주 역사·문화 공간을 체험했다.

특히 독일 학생들은 광주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물리 실험 수업에는 자기장과 전기장을 사용하는 입자가속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가속기가 있는 유럽합동 원자핵 연구소(CERN)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목포대, AI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내 주요 기업·기관과 협약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목포문화방송 8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재생에너지 분야의 확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 기관들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문화방송(주) △해운대해상풍력발전1 △해운대해상풍력발전3 △신안우이해상풍력(주)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AI 기술 기반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목포대는 해상풍력과 AI의 융합을 통해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남 서남권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 예측 유지보수 기술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의 도입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인재 양성, 재생에너지 산업 기술·정책 개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인식 확산 등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목포대는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지



독일 빌헬름 오스트발트 김나지움 학생들이 글로벌 사이언스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광주과학고 학생들과 물리·화학·생명과학 실험에 참여했다.

광주과학고 제공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로렌초 비탈리 아노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전혀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정말 특별했다”며 “광주과학고 친구들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준상 광주과학고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광주에서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에 이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협약은 AI 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전남교육청, 전남상업경진대회 성료

### 18개교 학생 347명 참가 상업·정보 실무능력 겨뤘

제15회 전남상업경진대회가 최근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대한상업교육회, 전남상업교육회, 한국생산성본부, 목포상공회의소, 세무법인청년들, 와콤퍼니에서 후원하고 목포여상이 주관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지역 상업계열 특성화고 18개교 34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에서 배운 상업·정보 분야 실무능력을 겨뤘다.

올해 대회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처음 열린 경리실무를 포함해 회계실무, 창업실

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세무실무,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경제 골든벨 등 총 13개 종목이 운영됐다.

대회 전날에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신 교육국장이 참석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해외유수인재 유학생으로 목포여상에 재학중인 쿠바와 몽골 학생들, 목포여상 댄스팀 더담, 목포중앙고 밴드부 Peak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전남상업경진대회는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전남예선대회다.

각 종목별 6위까지 수상자는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경주시 일원에서 오는 9월 2



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교장 선생님들과 대회 운영 실무

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업계열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상업·정보 분야 인재 양성과 상업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31사단, 어린이 대상 ‘드론 체험교육’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최근 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에서 지역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드론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 사단과 광주시, 북구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단은 올해 지역 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관공서, 119특수구조단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드론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험은 △군 드론 및 온빛누리 드론센터 소개 △드론 이론교육 △시뮬레

이터를 활용한 모의비행 △드론 운용 관람 △아동용 드론 체험 등 총 2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드론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드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교육을 지도한 정보참모처 주현지 상사는 “이번 드론 체험교육이 광주 지역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민간군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충장부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는 정예



드론 조종사 양성과 후방지역 드론보전 체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19년 10월 전군 최초로 군·관 협업을 통해 개소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드론 전문 조종사를 양성했고 지난해에는 광주소방 등 4개 기관 8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최환준 기자